

정혜결사도량서 불교중흥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800여년 전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불교 부흥의 토대를 닦았던 정혜결사 도량 송광사에 또다시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의 염원이 울려 퍼졌다. 2019년 동안계 융맹정진으로 한국불교 수행문화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상월선원의 원력을 계승하고 전법과 포교, 세상과 어우러지는 불교를 염원하는 만행결사 두 번째 대장정이 시작됐다.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10월1일 오전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입제식을 갖고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첫발을 땀다. 순례는 이날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를 시작으로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를 거쳐 10월18일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회향된다.

이날 입제식에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등 순례단을 비롯해 조계총림 방장 현봉, 총회외장 정문, 교육원장 진우, 포교원장 범해,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경우, 송광사 주지 자공,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조계총림 방장 현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혜결사 도량 송광사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동참대중을 격려했다. 스님은 "이곳 정혜결사 도량에서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마음을 이어 천릿길 도보정진 걸음마다 불심이 충만하고 순간순간 깨달음이 열리며 해안이 밝혀져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이 나라에 불법이 중흥되고 온 누리에 부처님 정법이 선명한 불국정토가 이뤄지길 기원한다"며 "불퇴전의 신심과 정진으로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원만히 회향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자재한 대 자유인이 돼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되고 미래불교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축사에서 "한국 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위한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제식이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걸음걸음마다 부처님 가피가 가득 피어나 나라가 평안하고 불교가 중흥되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입제식에서는 비구 우봉, 비구니 지혜 스님, 우바새 정종래, 우바이 이태경 불자가 천리순례 동참대중을 대표해 고불문을 낭독했다. 동참대중은 고불문에서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대자대비의 꽃비가 내리는 길임을 저마다 확인하겠다"며 "강과 산을 따라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진 존엄한 삶의 길임을 알아가며 자기수행과 대중화합이 어우러진 불교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천리순례 시시처처에 불국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한 상월선원 대중들이 10월1일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장정을 시작했다. 순례에 앞서 송광사에서 입제식을 봉행했다.

10월1일 입제식 봉행...순례단 비롯 조계총림 대중 등 200명 동참 "청정수행전통 이어 자기수행-대중화합의 불교운동 실천" 발원 19일간 하루평균 24km 묵언 행선...순례곳곳서 문화행사 열려

정도가 장엄돼 있음을 보게 하시고 청정수행 전통이 면면약존 이어져 내려움을 듣게 하시며 묵언행선을 통해 세계 일화의 절대평화를 깨치도록 해 줄 것"을 서원했다.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총 이동거리는 423km다. 하루 평균 24km를 온전히 걸음에 걸음을 더해 12개 시군의 천 년고찰을 순례한다. 순례단은 비구 48, 비구니 6, 우바새 14, 우바이 26명 등 총 94명이 순례대중으로 동참하며 방역, 안전, 의료, 행정, 기록 등을 담당하는 의호대중까지 모두 120여명으로 구성됐다. 동참대중은 새벽 3시에 기상해 3시 40분 예불을 모신 후 4시부터 7시까지 휴식 없이 행선한다.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아침공양을 겸한 휴식을 취한 후 50분 행선 10분 휴식하며 나머지 일정을 진행한다. 오후 4시 저녁예불을 모신 뒤 자율정진 및 개인정비의 시간을 갖고 저녁 9시 취침에 든다.

순례길에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체험하고 불교중흥의 발원을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순례단 방문에 맞춰 10월1일 사성암은 '길 위에서 길을 찾다' 스토리텔링 공연을, 2일 화엄사는 화엄음악제와 3일 시암재에서 노을음악제를, 9일 해인사는 보살계 수계산림을 연다. 또 14일에는 '포교진흥'을 주제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중공사를, 16일 표충사는 사명대사 다래재 및 호국음악제를 개최한다.

지난해 만행결사가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국불교의 첫 관문이었다면 천리순례는 불교와 세상이 함께 회통하고 어우러지는 실천행이다. 옛선지식들은 불교가 침체되고 세상이 힘들 때마다 분연히 결사를 추진했다. 결사는 그 시대 불교계가 부처님 가르침과 울장에 어긋나고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각과 반성에서 출발해 그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의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불교혁신의 운동이다. 여기에 삼보사찰은 불법승 삼보, 즉 불자들의 귀의처를 상징한다. 천리순례는 만행수행과 성지순례의 의미가 더해져 사부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삼보사찰 천리순례 동참대중은 이날 22km를 걸어 전남 곡성 용비위 주민생활체육공원에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차 순례는 구례 사성암까지 25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순천=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윤태훈 기자 yth92@beopbo.com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중 고불문

시방삼세 모든 생명에 계시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오늘 삼보사찰 천리순례 사부대중은 유례없는 감염병과 분별갈등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려는 다짐으로 불법승 삼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고하옵니다.

우리가 직면한 고통을 중생 모두의 과보로 여기고 나부터, 우리 먼저 미혹함을 사르겠다는 청정발원을 깊게 새깁니다. 함께한 원력으로 쓰러진 자리에서 떨쳐 일어설 것이며 이제 천리순례 만행길을 기꺼운 마음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지혜의 눈을 열어주고 막막한 가슴을 청명하게 밝혀주었던 불법승 삼보의 불국성지가 이 땅에 있음을 확인하고 한국불교의 정법존엄을 지켜온 삼보종찰을 두루 알리어 상월결사의 공덕을 전법의 빛으로 널리 승화하고자 합니다.

만민의 힘을 내려주셨으니,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대자대비의 꽃비가 내리는 길임을 저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 길은 상월선원 정진이 일깨워준 불교중흥의 초석이 되는 길이며 국난극복과 민생회복을 염원하는 실천의 길임을 굳게 믿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대원력의 바탕 위에 서로를 참된 인연으로 여기며 실천수행의 진중한 가르침을 지극히 따르겠습니다. 강과 산을 따라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에 이르기까지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진 존엄한 삶의 길임을 알아가며 자기수행과 대중화합이 어우러진 불교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그 옛날 부처님께서 걸으신 전법과 포교의 길이 우리 땅에도 똑같이 살아있음을 환희심으로 체감하고 한국불교 전통계승 순례, 불교중흥 원력동참 순례, 사회갈등 극복화합 순례임을 여실히 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옵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한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고하오니 자비로운 천 개의 팔과 지혜로운 천 개의 눈으로 우리 가는 길을 밝히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원하고 원하옵건대 천리순례 시시처처에 불국정토가 장엄되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청정수행 전통이 면면약존 이어져 내려움을 듣게 하시며 묵언행선을 통해 세계일화의 절대평화를 깨치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보사 석가모니불

불기2565년 10월1일
삼보사찰 천리순례 사부대중 일동

▶ 삼보사찰 천리순례 일정 ◀

일 자	순례지	이동거리	누적거리
10월 1일	순천 송광사-곡성	22km	22km
10월 2일	곡성-구례 사성암	25km	47km
10월 3일	사성암-구례 화엄사	25km	72km
10월 4일	화엄사-천은사-시암재	19km	91km
10월 5일	시암재-성삼재-남원	26km	117km
10월 6일	남원-실상사-함양	19km	136km
10월 7일	함양-지안재-함양	30km	166km
10월 8일	함양-살피재-가조	30km	196km
10월 9일	가조-합천 해인사	27km	223km
10월 10일	해인사-고령	22km	245km
10월 11일	고령-고령	23km	268km
10월 12일	고령-창녕	27km	295km
10월 13일	창녕-부곡	27km	322km
10월 14일	대중공사		322km
10월 15일	부곡-홍제사-밀양	29km	351km
10월 16일	밀양-밀양 표충사	24km	375km
10월 17일	표충사-사자평-울산	25km	400km
10월 18일	울산-양산 통도사	23km	423km

가을빛 물든 산사로
기차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

문의 1544-7755

01 충남 공주 갑사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02 충남 예산 수덕사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03 경북 안동 봉정사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04 경북 봉화 축서사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문의 1544-7755 |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 또는 앱